

## <書 評>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By Stephen Ullmann pp. 263.  
New York, Barnes & Noble, Inc., 1962.

金 權 鎬

意味의 研究 즉 意味論은 言語學에서 가장 論爭點이 많은 部門이다. 1930年代까지 意味論은 主로 歷史的 考察을 그 重要課題로 삼고 있었다. Bréal, Reisig 등 歷史意味論者들은 意味變化의 分類과 法則을 摸索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研究가 貧弱한 實驗的 資料에 根據를 두었기 때문에 그 業績은 限定된 範圍에서 成功을 거두었을 뿐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G. Stern은 *Meaning and Change of Mea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nglish Language*에서 意味變化의 原因을 규명해서 意味變化의 諸現象을 體系化하려는 大膽한 試圖을 하였다. 이후 이冊은 意味論研究의 責重한 古典이 되었다.

그러나 最近 30年間에 意味論研究의 焦點이 달라졌고 意味論者의 關心이 歷史意味論에서 記述意味論, 意味의 構造論的 問題로 돌아가고 있다. 또한 意味構造論의 實驗的 結果는 意味變化研究에 대해서 새로운 問題點을 提示하고 있다. 따라서 G. Stern의 *Meaning and Change of Meaning*만으로 意味論學徒는 滿足할 수 없게 됐다.

現代記述意味論이 提示한 諸問題點을 쉽게 살필 수 있는 由一한 單行本이 이 S. Ullmann의 *Semantics*이다. 著者는 Leeds大學의 浪漫語教授로서 一般言語理論에 博學한 學者이며 文體에 關한 著述以外에도 이미 意味論의 貴重한 *Principles of Semantics*(1951)를 내놓았다. 이것은 主로 專門家를 對象으로 한 理論的인 難解한 冊인데 比해서 *Semantics*는 專門家뿐만이 아니라 學生을 對象으로한 읽기쉬운 入門書이다. 이 冊에서는 理論은 必要한 範圍內에 局限되어 있으며 主로 實驗的 考察이 爲主가 되어 있다. 또한 意味論의 各分野에 대한 풍부한 bibliography가 必要에 따라 比較 紹介되어 있어서 意味論을 將次 研究하려는 學徒에게 有益한 指針이 된다. 特히 文學에서 많은 例를 들어 具體的인 說明을 하고

있으며 意味論現象과 文體와의 關係를 論한 點에서는 文學徒에게도 價値있는 冊이 된다.

著者が 結論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冊의 目的은 意味論의 過大業績, 意味論의 여러가지 問題點의 限界 새로운 意味論方向의 提示, 그리고 그 本來의 展望을 보여주는데 있다. 그리고 意味論의 重要な 問題가 未解決된 現在 狀態로서는 이 冊은 中間發表에 不過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事實上 그는 研究의 範圍를 語意味(word-meanings)에만 局限시키고 있으며 그 意味도 language의 meaning(speech의 meaning과 對比된)을 말한 것이다. Ullmann의 理論의 基盤은 Ferdinand de Saussure이며 그의 持論이 美國의 構造論者와 對照되는 點이 많다.

Introduction에서는 最近에 이르기까지의 意味論의 發展相을 略述하였고 意味論의 隣接分野, 즉 哲學의 意味論, 思考와 言語의 關係, 文體 등에 對해서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Chapter 1, 2, 3은 意味論의 基礎的 原理를, 言語, 語, 意味의 順序에 따라 說明한 것이다. Chapter 1. How Language is Built Up—Bloomfield의 理論에 對해서 再檢討하고 있으며 特히 注目할 點은 phoneme theory는 音研究에 意味論의 見地를 導入해서 可能하게 된 것임을 指摘하고 音과 其他 音聲學的 特徵이 갖는 意味機能이 意味研究에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語에 대한 言語學研究인 lexicology는 形態와 意味 兩面에서 各各 追求될 수 있고 前者를 morphology, 後者를 Semantics라고 한다. Syntax역시 形態와 意味의 研究 즉 morphology와 Semantics로 나누고 있다. 文法은 言語의 ‘general fact’를 研究하는 것이며 lexicon은 ‘Special fact’를 研究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文法은 意味를 研究對象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特히 美國構造文法家들의 文法概念과 對應的이다. Ullmann은 그의 意味論(語意味의 研究)이 文法에서 取扱할 수 있는 意味와는 區別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Chapter 2. The Nature of Words—語를 세가지 見地에서 考察하고 있다. ① a Phonological Unit. ② a Grammatical Unit. ③ a Unit of Meaning 意味의 單位로서의 語의 意味는 文脈에 依해서 全的으로 決定된다는 極端論을 排撃하고 있으나 語의 意味決定 要因으로서의 文脈을 重要視하고 있다. 特히 全體文化를 背景으로 하는 ‘Context of Situation’說이 意味論에 새로운 展望을 주고 있음을 指摘하고 또한 contexts가 語意味에 주는 影響을 說明하고 있다.

Chapter 3. Meaning—意味論에서 意味의 定義는 重要な 課題이다. 그러나 이 定義가

반듯이 單純하지 않다는 것은 Ogden & Richards가 各各 差異나는 23種의 意味定義를 例擧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Ullmann은 意味를 語意味에만 局限시키면 그 複雜性이 多少 減少될 수 있다고 한다. lexical meaning과 structural meaning을 比較해서 云云하는 경우 語에 마치 構造가 없다는 印象을 주기 쉽다는 것도 留意할 點이다. 意味의 定義를 두 學派로 區分해 說明하고 있다. 즉 Analytical or Referential Definition과 Operational or Contextual Definition. 分析的 定義의 基盤인 Ogden & Richards의 基本三角圖(the basic triangle)에 대해서 著者는 用語를 簡單하게 name(symbol), sense (thought), 그리고 thing(referent)로 修正하였다. 言語學的으로 볼 때 Ogden & Richards의 樣式은 語가 聽者에 作用하는 面을 說明할 수는 있어도 話者의 見地를 無視한 短點이 있다. 그래서 著者는 語의 意味를 'recepocal and reversible relationship between sound and sense'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 分析的 定義는 特히 Bloomfield를 爲始한 antimentalist들로부터 猛烈히 반박되고있다. 이들은 科學的 分析을할 수 없는 mental entities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著者는 antimentalist들이 빠지기 쉬운 二元的 見解(name과 thing)의 短點을 例證하고 그들의 見解가 偏見에 立脚하고 있음을 논박하고 있다. 分析的 定義는 言語學者에게는 아직도 有益한 것이다. 이 定義를 適用함에 있어서 단지 語를 고립된 自律的 單位로만 生覽하는데서 일어나는 原子論的 見解에 빠지지 말아야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著者가 例示한 sense와 sense, sound와 sound, sound와 sense의 相互作用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分析的 定義는 또한 方法論을 提示해주는 長點이 있다. 즉 言語의 研究가 name에서 着手될 수 있는 同時에 sense에서도 着手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sense에서 始作된 研究의 例로 Dialectology, Linguistic Geography, Roge's Thesaurus와 같은 概念辭典, 그리고 'semantic fields'(分野說)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觀點은 “모든 言語研究는 形態에서 始作되어야한다”고하는 見解와 과연 어떻게 結衷될것인가 의문이다.

Wittgenstein의 Philosophical Investigation이 나온 以後 操作的定義(Operational Definition)는 意味論者의 重要한 關心事가 되었다. 이 定義는 言語의 'use'를 基盤으로 하고 있는 點에서 speech의 意味를 問題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 反對로 分析的 理論은 language의 意味를 다룬다. 特히 操作的 理論은 現代言語學的의 'substitution test'를 適用하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 그러나 이 理論이 아직 充分한 價値를 證明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操作的 定義는 決코 分析的 定義와 判異하게 區別되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相互補

助될 것이다. 最近 E. Osgood, G. J Suci 등 心理學者들의 'measuring meaning'은 實驗의 土臺를 갖는 分析的 理論이 可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hapter 4, 5, 6, 7는 記述意味論의 重要問題를 論述하고 있다. 때로는 歷史的 資料가 介入되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記述意味論의 問題를 解明하는 手段에 지나지 않는다.

Chapter 4. Transparant and Opaque Words—sound 와 sense 사이에 어떤 必然的 關聯性을 가진 語를 透明語, 有契語(transparant, motivated words)라고 하고 그 사이에 必然的 關係가 없는 語를 不透明語(opaque) 혹은 慣習語, 無契語로 부르고 있다. 著者は 이 두가지 種類의 語가 共に 言語에 存在하고 있다는 것을 記述學的, 歷史學的, 比較學的 見地에서 各各 客觀的으로 立證하고 있다. 有契性을 音聲 形態 意味로 區分해서 說明하고 있는데 音聲 有契性은 onomatopoeia에서 찾아볼 수 있다. 形態有契性の 例는 構形成態素로 分析될 수 있는 派生語, 複合語이며 意味有契性은 bonnet of car에서 나타난 衣類와 對象 사이의 類似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有契性の 獲得, 喪性, 有契語와 無契語의 配分量 그리고 이러한 要因의 相互作用이 詳細히 記述되어 있다.

Chapter 5. Logical and Emotive Factors in Meaning—語의 曖昧性이 일어나는 여러가지 原因 條件을 究明하고 있으며 語의 感動的 陪音이 일어나는 原因과 感動的 陪音을 強化시키는 言語學的 方法, 또 그러한 陪音이 弱化되는 面을 例示하고 있다.

Chapter 6. Synonymy 著者は 構造論의 立場에서 synonymy의 組織化와 그 分布를 研究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言語의 同意語資源은 相當한 系統的 pattern을 보여준다. 英語의 Saxon對 Latin의 double scale(例 answer : reply)이 그 한例이다. 同意語의 distribution에서도 pattern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社會가 興味를 가진 問題에 對한 同意語의 集中('centre of attraction')을 말한다. Beowulf에 나타난 'hero'의 同意語를 37個나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現象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pattern의 研究는 語構造와 心的狀態 關心과의 關係에 대한 理解를 促進시켜줄 것이다. 이以外에 두개의 同意語가 平行해서 變化하는 경우에도 pattern이 나타난다고 한다.

著者は Synonymy가 特히 文體의 貴重한 資源이 되고 있음을 指摘하고 그러한 使用을 例證하고 있다.

Chapter 7. Ambiguity—Empson이 文學에서의 ambiguity를 七種 區分한데 對해서 著者は 言語學的 見地에서 音聲・文法・語彙의 세가지 面에서 ambiguity를 究明하고 있다.

音聲의 曖昧性이 特히 顕著한 것은 homonymy 이며 文法的인 것으로는 desirable 과 eatable 에서의 suffixes -able 이 갖는 文法的 形態上的 曖昧性에서 한例를 들고 있다. 語彙의 要因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曖昧한 것임을 指摘하고 하나의 sound 에 여러가지 sense 가 結合되는 polysemy 와 두개 或은 그 以上の 語가 sound 를 같이 하는 homonymy 를 區別해서 이러한 現象이 나타나는 過程을 說明하고 있다. 또한 polysemy, homonymy 가 言語에 미치는 影響을 究明하고 이러한 ambiguity 를 利用한 文體論的 使用과 그 效果를 論하고 있다.

Chapter 8. Change of Meaning 은 歷史意味論이다. 意味論學徒는 Stern 과 Ullmann 에서 意味變化의 分類에 대한 研究의 出發點을 찾아야 할 것이다. Ullmann 은 意味變化를 促進시키는 要因으로서 Meillet 가 이미 指摘한 discontinuous, vagueness, loss of motivation 外에 polysemy, ambiguous contexts, the structure of the vocabulary 를 追加시켰다. 意味變化의 原因으로서는 또한 Meillet 의 歷史的原因, 言語的原因, 社會的原因 外에 心理的原因, 外國의 原因, 名稱의 必然性을 들고 있다. 著者は 낡은 意味와 새로운 意味사이의 聯想이 意味變化의 必須條件임을 밝히고 獨立된 語와 語사이의 聯想으로 起因된 意味變化를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 發達된 'associative fields'의 重要性이 言及되고 있다. 이것은 語보다는 큰 單位를 問題삼고 있는 것이다.

著者は 意味變化를 sense 와 sense 사이의 聯想과 name 과 name 사이의 聯想의 두 部門으로 分類하고 다시 이것을 similarity 와 contiguity 兩面에서 細分하여 說明하고 있다. Similarity of Senses 項目에서는 metaphor 에 대한 言語學的 究明이 그 中心이 되어 있고 contiguity of senses 에서는 metonymy 를 說明하고 있다. 그리고 similarity of names 은 popular etymology 를, contiguity of names 에서는 ellipsis 現象을 各各 說明하고 있다. 이 中에서 senses 사이의 聯想이 가장 重要하다. 著者は Stern 의 'Swift and Swiftly'에서의 研究態度와는 다른 角度에서 pattern 을 追求할 수 있는 可能性을 提示하고 있다. 意味變化의 結果를 論하는데 있어서 著者は 特히 새로 獲得한 意味의 範圍, 意味의 感動的 陪音에 對해서 焦點을 두고 있다. 過去의 意味論者들이 行한 意味變化의 論理의 分類가 意味變化의 窮極的原因, 心理的背景을 證明할 수 없었던 點을 指摘하고 그 分類의 再檢討를 하였으나 별로 새로운 것이 못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Ullmann 의 分類法이 Stern 의 것 보다는 形式的 面에서나 理論的 面에서나 더 잘 整理되어 있는 것 같다.

Chapter 9. The Structure of the Vocabulary——지금까지 獨立된 語를 中心으로 한테 對

해서 여기서는 全體的인 語彙構造를 다루고 있다. 構造論的 方法이 語彙研究에도 適用될 수 있는 可能性을 充分히 證明하고 있다. 이 章에서 우리는 'semantic field', 'semantic typology' 등 새로운 意味論의 課題와 問題點을 살필 수 있다.

마지막 結論에서 著者는 이 冊의 目的을 說明하고 意味論 發達에 있어서 重要的 幾가지 決定的 問題를 提示하였으며 意味論의 特有的 教育的價値를 再強調하고 있다.